

소설의 주변성과 인문학적 위상*

현길언**

차 례

1. 문제와 논거
2. 허구적 서사의 본질
 - 2.1. 우주만물의 시원에 대한 언어적 상상력
 - 2.2. 인간에 대한 관심과 서사적 상상력
3. 소설의 주변성과 소설 연구
 - 3.1. 소설의 주변성
 - 3.2. 도서성과 주변성
 - 3.3. 소설 연구의 인문학적 의미
4. 소설 연구의 방법에 대한 성찰을 위하여

1. 문제와 논거

이 글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주변적 진실을 탐구하는 소설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소설과 소설 연구의 인문학적 위상을 논의하려고 한다. 과학으로 자연의 실체는 해명할 수 있으나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 이 글은 2009년 11월 5일 한국언어문화회 전국대회 기조강연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음.

**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석좌교수, hku1940@hanmail.net

매우 제한적이다. 자연은 객관적 존재로서 사물적 속성이 강하지만 인간은 주체적 속성이 강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적 상상력을 형상화된 작품을 통해서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탐구할 수 있다.¹⁾ 이렇게 과학과 예술은 세계를 이해하는 창조적 행위의 두 산물이다.²⁾

소설은 인간과 그 인간과 관계 맺고 있는 세계를 작가가 소설적 상상력에 의해 해석하여 허구적 서사로 재구성한 것이다. 거기에는 삶의 실체가 현상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는 다른 해석된 허구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연구는 현상이나 사물로서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의 소산인 허구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학문의 방법과는 다른 소설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문은 객관적 사물이나 현상의 실체 중에 중심부적인 것을 찾아낸다. 즉 통계적 신뢰성을 가져야 의미가 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가치와 효용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학문은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런데 문학은 이데올로기나 가치에서 벗어나 대상의 실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주변적이다.³⁾ 즉 과학은 중심부적 진실을 탐색하지만 소설적 진실은 주변적이다. 그러므로 중심부 실체를 해명하는 학문의 이론이나 방법으로 소설을 연구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즉 소설이 추구하는 주변적 실체를 밝힐 수 없다. 주변적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방법과는 다른 소설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소설의 주변성은 도서성(島嶼性)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섬의 문학이 보유하고 있는 주변성은 중심부 이데올로기와 그 가치를 넘어 새로운 삶의 논리를 추구해왔다. 이것을 토대로 소설의 본질로서의 주변성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 의지한다.

(1) 과학적 방법은 자연의 객관적 실체를 탐구하는 데는 유용하나, 그

1) 소설과 인간과 세계의 진실 탐구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했음. 현길언, 『한국현대소설론』, 태학사, 2002. 16~17쪽.

2) J. 윌프(송효근), 『철학과 예술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82. 212쪽.

3) 현길언, 『문학과 성경』,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46쪽.

- 존재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 과학적 방법으로 인간과 그 인간의 살아가는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3)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미치지 못하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 (4) 소설 연구는 인간과 세계의 주변부적인 진실을 탐구함으로써 그 인문학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2. 허구적 서사의 본질

2.1. 우주 만물의 시원(始原)에 대한 언어적 상상력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과 역사의 시원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유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향유했다. 그 중에는 인간의 존재와 세계의 근원에 대한 것들이 많다. 애초에 사람들은 자연의 재해와 맹수와 적의 공격으로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당장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신화는 우주만물과 인류 역사의 시원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성경 「창세기」까지도 그 모티브가 일반 신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은 신화적 서사가 인간의 존재성과 세계의 근원에 대해 탐구에 관심을 두었음을 의미한다.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

4) 창세기의 창세 내용이 일반 신화와 유사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현길언, 『인류역사와 인간탐구의 대서사=어떤 작가의 창세기 읽기』, 물레, 2009. 16~17쪽.

님이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기록에 의하면, 언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언어가 신의 입에서 인간의 입으로 옮겨왔을 때에 인류의 문화를 창조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이 자신이 창조한 자연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닮게 인간을 창조했다는⁵⁾ 기록에 의지한다면, 인간의 언어는 신의 언어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 세계에 전승되는 이야기에 신의 언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창조 행위와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언어의 창조성은 기독교적 언어관에 머물지 않고, 언어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서사적 언어는 인간과 세계의 실체를 탐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어느 민족이든지 신화를 통해 그들의 집단적 존재성을 탐색하여 확립하였다. 성경의 발원지인 중동 지역이나 세계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로마만이 아니라, 세계의 작은 변방인 제주에도 창세신화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시원에 대한 관심이 인류 공통이었음을 말해준다.

태초에 천지는 혼돈으로 되어 있었다.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되어 서로 맞붙고, 암흑과 흑암으로 휩싸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혼돈 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년 갑자월(甲子月)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子方)으로 열리고, 을축년(乙丑年) 을축월 을축일에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丑方)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는 틈이 열리기 생겨났다. 이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덩어리에는 산이 솟아 오르고 물이 흘러내리곤 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는 점점 분명해져갔다.

이 때 하늘에서는 푸른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또는 물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合水)되어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먼저 생겨난 것은 별이었다.⁶⁾

5) 「창세기」 1장 26~27.

6) 현용준 편, 『제주도신화』, 서문문고, 1977, 11쪽. 이 내용은 제주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천지왕본풀이」를 정리한 내용임.

이 무격(巫覡) 조상의 내력으로 전승되어온 본풀이에서 읽을 수 있는 창세 과정은 성경 「창세기」의 기록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그 틀의 중심은 혼돈에서 분리되면서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만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본풀이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상태가 차츰 분리되면서 우주 생성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창세기에서는 ‘빛’에 의해 혼돈 상태가 분리되면서 만물이 창조가 시작되었다. 성서와 제주의 구비 전승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통성은 인간의 사유가 원초적으로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고, 그것은 온 우주를 통제하는 신의 언어와도 상통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낸 서사언어가 창세 이야기였다는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와 세계를 탐색하려는 인간의 보편적 사유가 존재성의 탐구에 있음을 말해준다. 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이라면 창세의 문제를 신화적 서사 언어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세계사의 변두리 한 작은 섬사람들의 의식에도 창세에 대해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들끼리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는 시 공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신의 이야기와 상통하고 있음을⁷⁾ 짐작하게 한다. 여기에서 각 지역 문화와 그 주체의 사유의 바탕에는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를 서사언어로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언어 주체의 궁극적 관심은 이 우주와 인간의 실체에 대한 탐색에 있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러한 우주 생성과 인류 문화의 시원에 대한 관심은 자기 존재성을 해명하는 순서였다. 인간은 이렇게 자아와 세계의 존재성에 대한 관심과 그 해명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것을 결국 언어로 서사화했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 이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행해 왔던 과제였다. 그래서 인간들은 처음부터 자신과 자신을 존재하게 한 우주와 자연과 시간과 공간에 대해 탐색하면서 그 결과를 언어화했던 것이다.

7) 하나님을 빌어서 썼다는 기독교적 성서관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신화의 공통성을 통해서 신의 사유와 인간의 사유가 상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을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애써 왔다. 근원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성경에 의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게 된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 인간의 일 가운데는 신의 일과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주만물에 대한 탐색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창세 신화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더라도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본질적 관심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신화적 상상력이 우주와 만물을 창세하고 주재하는 절대자 신과 그의 속성을 타고난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화는 우주만물과 인간의 시원(始原)에 대한 탐색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이러한 신화적 상상력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옮겨오면서 문학행위로 발전한다. 그들은 쉬지 않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즐겼다. 그 이야기들은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했기 때문에 전승될 수 있었다. 그것을 향유했던 사람의 언어의식과 욕구가 시공을 넘어서 상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의 도구가 되면서, 때로는 정치성을 띄어 이념화하기도 했다.

2.2. 인간에 대한 관심과 서사적 상상력

우주와 만물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그 다음 단계에는 인간의 문제로 향한다. 인간들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각각 개별적인 모습으로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 또한 인간은 자연에서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

8) 신은 그가 창조한 자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관리를 맡겼다. 창세기 1장 26절.

를 이해해야 했다. 이러한 욕구가 결국 학문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연에 대한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가능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지식은 과학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그 육체만이 과학적 대상이 될 뿐 정신과 마음을 비롯해서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명하거나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도 과학적 방법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이처럼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인간을 탐구하는 도구로서는 제한적이다. 과학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서사언어로 탐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와 인간의 시원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은 현실의 바탕 위에서는 인간의 존재성과 그 삶의 문제를 파악하는데도 기여하게 되었다.

자아와 세계에 대한 탐구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 첫째는 자연을 탐구하는 일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생존을 위한 자원을 얻고 살아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알아야 생존을 위한 것을 공급받기도 하고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노력에 값하는 만큼만 제공해 주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과 세계의 탐구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효용적 차원을 넘어서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배반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의 역사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도 효용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즉 신과 인간의 화해와 통합, 인간과 자연의 화해, 인간과 인간의 화해, 사회와 인간의 화해, 이러한 화해와 통합을 통해서 복락원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 문학도 한몫을 감당하고 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육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욕구도 갖고 있어서, 신과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 방법은 한계가 있다. 신과 인간과 우주의 창세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측면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계의 차원은 과학으로 해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그 관계에서 인간이 개입될

경우에는 더욱 이해가 어려워진다. 또한 중심부에서 이탈한 주변적인 것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과학적 방법은 통계적 신뢰성을 지녀야 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분 즉 중심부만이 과학으로 해명된다. 주변적인 것이나 비 물리적 실체 또는 관계성에서 벗어지는 다양한 현상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 인간과 세계의 탐구에서 소설적 상상력이 필요하게 된다.

3. 소설의 주변성과 소설 연구

3.1. 소설의 주변성

인간은 육체로서의 자연의 요소와 정신 작용과 관계되는 복잡한 초자연적 요소로 되어 있다.⁹⁾ 인간의 육체는 과학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신과 감정 정서 영혼의 문제는 과학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들은 인간의 사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까지도 과학으로 해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인간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데는 과학적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계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성을 극히 개인적이고 상황적이어서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더구나 인간은 사유나 행위가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 외면화된다고 해도 부분에 그친다. 이렇게 인간은 구체적인 존재이면서 추상적인 존재여서 그 실체를 탐색하기 어렵다. 철학이나 심리학 역사학 등 다양한

9)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피조물로서의 요소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된 신성성이다(「창세기」 1~2장). 이것은 다시 악마성과 결합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피조물로서의 요소는 다른 자연물처럼 정지한 질서의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신성성이나 악마성은 과학적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학문의 방법으로 이해하는데 제한적이다.

인문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을 탐구하여 왔지만, 그것도 가설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과학적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상과 내면화된 인간의 모습과 그와 관계된 다양한 실체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는 소설로 형상화하는 방법이 있다. 소설은 인간과 세계의 현상에서 작가가 선택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의미를 찾아내어 상상력의 도움으로 재구성하여 서사적 언어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소설은 인간의 진실과 세계 현상과 그것을 해석한 작가인 개인과 그것을 표현하는 문화적 유산인 언어가 각기 그 나름의 역할을 적절하게 감당하면서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 독자는 그 소설을 통해서 학문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창작된 소설 속의 인간은 일상적 인간과는 다른 특이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소설의 인물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상적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특이한 인물이다. 즉 현실의 중심 가치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인물이 아니라 주변적 진실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플라톤은 그의 『이상국』에서 시인을 추방했다. 시인이 추구하는 세계는 절대 진리인 이데아에서 두 단계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유였다.¹⁰⁾ 그런데 사실은 그가 추구하는 이상국에서는 환상을 좇는 시인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현실에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학문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일을 맡아왔다. 그러나 소설을 가치보다는 진실을 추구한다. 그것은 현실적 가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동양에서는 소설을 ‘小道’¹¹⁾, ‘小家珍說’¹²⁾이라는 등 ‘道聽塗說’¹³⁾ 정도로

10) 플라톤은 이데아와 자연과 예술의 관계를 동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동굴에서 태어날 때부터 벽 쪽을 향해 의자에 묶여 있는 인간이 동굴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빛에 의해 벽에 아름다운 그림자와 연극을 보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밖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밖의 세계(자연 현상)는 다시 참이데아의 그림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동굴 벽에 나타난 아름다운 그림자와 연극은 ‘그림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윤병태, 『모방과 실제 1-Platon 철학과 그의 예술론』, 『인문과학』 79,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10. 194쪽).

인식했다. 심심풀이를 위한 잡담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교훈이나 삶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이야기는 도를 전파하거나 강화해야 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조선조선비의 소설관에서 보면,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한 소설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도¹¹⁾ 당연하다. 이렇게 소설은 주변적이었다.

소설의 주변성은 소설 구조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소설의 주인공은 주변적 인물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영웅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소설 인물은 동시대에 필요한 이념이나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다. 소설의 주인공은 독자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나 고상한 인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길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루카치의 말대로 소설은 삶의 총체성이 부너진 혼돈의 시대가 낳은 산물이며, 이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일상적인 가치의 기준에서는 하나의 문제아를 통해서 부각된다.¹⁵⁾ 이렇게 문제를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물은 가치를 지향하고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내밀한 진실과 세계의 현상을 드러내 놓는데 기여한다. 즉 소설의 인물은 반 영웅적이며, 일상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일상인이 외면할 수 있는 진실을 지향하는 주변인이다.

둘째, 소설의 주변성은 그 플롯이나 서사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문제적 인물, 반 영웅적인 인물이 플롯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공 스토리나 가치 지향적인 서사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플롯을 요구한다. 그래서 결말은 독자의 욕구를 배반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플롯 장치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 긍정이나 부정적 결말을 요구하는 독자의 기대를 무너뜨

11) 孔子, 『論語』 子張篇.

12) 孔子, 『論語』 世名篇.

13) 孔子, 『論語』 陽貨篇.

14)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 출판부, 2004, 24~25쪽.

15) 루카치는 이어, 총체성이 무너지면 삶은 문제성을 지니게 되며 개인은 세계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빠진 채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게 되고, 이들이 고립되면서 각 개인은 내면성이라는 자율적 삶을 얻게 되는데 이들이 결국 소설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다(G. 루카치, 반성환,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89, 60~63쪽).

릴 수 있다.

최인훈의 「광장」에서 주인공은 자살한다. 그 결말은 몰가치적이다. 현재와 과거의 교차 처리라는 플롯은 이명준의 일생을 탐구하는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을 성찰하는데 적절하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작품이 가치 있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성찰적 의미를 더하게 만들고 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되풀이되는 허생원의 옛날 추억거리는 고독한 허생원의 인생을 탐구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 독자는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밝혀내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작품은 단순히 그 고된 밤길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다'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허생원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문제 삼지 않는다.

김동인의 「감자」에서 복녀와 그 남편의 몰락은 전혀 독자가 요구하는 결말이 아니다. 독자들은 아마 복녀가 왕서방에게 돈이나 많이 얻어내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아내의 죽음 앞에 그 남편은 자기의 게으름과 아내의 매음을 조장하였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잔인하게 복녀를 육체적으로 몰락시키고 그 남편도 도덕적으로 몰락시켜버린다.¹⁶⁾ 이렇게 독자를 배반하는 플롯을 통해서 독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진실과 세계의 진실의 한 면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소설의 세계는 독자에게는 낯설겠지만 충격을 준다.

셋째 주제도 주변적이다. 소설은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다. 소설은 주변적 인물과 주변적 플롯을 통해서 일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회의 구조의 단면과 인간의 내밀한 진실을 독자 앞에 드러내놓는다. 그렇다고 비판적 사실주의를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인간과 세계를 탐구한다. 가치는 도덕과 법과 관습 등 다양한 방법과 장치에 의해서 논의되고 성찰되면서 개선되고 창조된다. 그러한 문

16) 「감자」에서 주인공은 복녀 부처로 보고 복녀의 육체적인 몰락 그 남편의 도덕적인 몰락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의 정체를 탐색한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현길연,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남, 1997. 32~33쪽.

제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다. 소설은 루카치가 강조했듯이 ‘사회적 주문’을 배반한다. 또한 제라파도, “조이스나 토마스만, 발자크 등의 소설이 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인생의 양상들이 출현하는 사회의 전체적 풍경화를 만들어내었는데,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서 내세우는 인물들의 가치관을 내부에서 침식하는 인물들”이라고 했다.¹⁷⁾ 이러한 소설 세계는 인간과 사회의 이면이나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으로 탐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소설을 통해서만 그 탐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설의 주변성은 도서(島嶼)성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3.2. 도서성(島嶼性)과 주변성

3.2.1. 울도국과 「만언사(萬言詞)」의 거리¹⁸⁾

「홍길동전」에서 홍 판서의 서자였던 홍길동은 가출을 단행하면서 울도국 건설의 큰일을 이루었다. 그는 능력이 있고 백성의 신망도 받고 있으면서도 조선 안에서는 꿈꾸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을 떠나 울도섬에서 그 일을 완성한다. 10년 동안 읽던 책을 던져두고 장사치로 나선 허생은 돈을 모으고는 어디론가 잠적했는데, 그는 어느 섬으로 가서 이상국을 건설했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조 사람들도 섬을 중심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했다.

시문학에서도 섬은 현세와는 다른 초월의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고산(孤山)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알고는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제주도를 향하다가, 보길도를 발견하고 거기에 세상과 절연하여 살면서 「어부사시사」를 썼다. 그는 번잡스럽고 치욕스러운 세상과는 다른 공간인

17) M. 제라파/이동렬, 『소설과사회』, 문학과지성사, 1977. 104쪽.

18) 섬의 문학과 주변성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음.

현길언, 「바다와 섬의 문학과 문학의 본질성」, 『제주문화론』, 제주목서원, 2001.

섬에서 가어옹(假漁翁)이 되어 자연과 더불어 초월의 경지를 관념적으로 노래하였다. 그 추구하는 자연은 선계(仙界)이고 불계(佛界)였다. 그런데 어디 땅 위에서 그런 세계가 가능하지 않다. 그가 추구했던 가어옹(假魚翁)은 관념의 산물일 뿐이다. 그래도 섬이니까 그러한 이상 세계를 관념적으로나마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은 섬이 지니는 속성으로 문학의 체질과 통한다.

섬은 울도국처럼 태평천하의 꿈을 이룩할 수 있거나, 고산(孤山)처럼 선계이거나 불계의 공간이 아니다. 정조 때에 추자도로 유배간 안조환의 「만언사(萬言詞)」를 보면, 섬은 죽지 못해 사는 인간 연옥이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배고픔을 이겨가며 생활하는 인간의 모습을 치열하게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처럼 섬은 가어옹(假漁翁)에게는 선계이고 불계이며 꿈꾸는 이상주의자에게는 울도국이지마는, 쫓겨온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삶을 오가는 고통스러운 땅이었다. 「만언사」에 나타난 섬은 바라보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다. 이렇게 섬은 서로 다른 두 모습으로 조선조 사람들 앞에 있었다. 이것은 섬에 대한 인식의 양면이면서, 동시에 세계와 사물에 대한 인식의 두 층위이고, 바라보는 문학과 살아가는 문학, 즉 문학의 본질적 두 속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울도국을 꿈꾸며 살아왔다. 그 꿈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사람들 의식에 향존한다. 이것은 섬의 존재성이고 문학의 본질이다. 현실과 먼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섬이고, 현실과 다른 삶의 현장이 섬이다. 이 꿈과 모진 삶의 두 측면은 섬의 주변성으로 문학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 준다.

3.2.2.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의 공간

이청준의 소설에서 도서성은 소설의 본질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당신들의 천국'으로만 존재하는 섬을 상정했고, 「이어도」에서는 '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 즉 사람들이 추구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어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

계에 대한 꿈은 인간들이 땅 위에서 ‘만들어가는 삶’ 그 자체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탐색이나 성찰도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청준은 그 섬의 실체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생각을 또 다른 작품 「섬」에서 읽을 수 있다.

「섬」은 독도 기행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독도 수비대장인 홍순철 씨와 독도를 20여 년 동안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작가 강형과 함께 ‘나’는 울릉도에서 독도 탐방 뱃길에 오른다.

작품에서 섬에 대한 화자‘나’의 상념은 늘 실제와 환상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나’에게 섬은 언제나 안개가 끼고 눈이 날리고, 아니면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몽롱한 환상에서 더 진전되지 못한다. 그러나 막상 그 섬을 만났을 때에는 그 환상은 달아났고, 그래서 ‘나’는 이상한 곤혹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제 그 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독도행을 감행한다. 그런데 막상 독도에 도착해서 보니, 섬은 역시 환상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임을 알게 되면서 섬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한 섬도 본래의 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20년 동안 독도를 카메라에 담았던 강형의 경우에도, 그가 찍은 것이 결국 독도의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섬의 존재성에 대한 의구심이 되살아난다. 실제와 환상 그 어느 것도 본질과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로소 섬에 대한 환상과 그 실제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나 인식, 그 어느 것으로도 섬의 참 모습에 이를 수 없음을 확인한다. 그러한 방법이나 태도가 섬의 부분적인 의미밖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피차 자신이 확인한 사실에 대한 믿음보다는 성찰의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다. 섬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섬을 떠날 수 없다. 섬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섬과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어도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온 몸으로 살아온 천남석 기자의 경우와 같다.¹⁹⁾ 그는 먼

19) 제주 남양일보 천남석 기자는 남태평양 해상에 있다는 ‘이어도’를 찾으려는 해군

나라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어도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다시 그 섬으로 돌아왔다. 작가는 이처럼 떠남의 실패, 곧 떠남이 돌아옴으로 이행되는 구조를 통해 섬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 청준이 섬의 존재성에 대한 탐색은 비단 물리적인 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섬에 대한 탐색의 방법은 세계를 인식하고 그 진실을 탐색하는 방법을 대신하는 것이며, 동시에 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확대한다.

3.2.3. 제주사람과 이야기와 주변성

제주사람들에게 만약 이야기와 노래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험한 땅에서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제주 사람들에게 이야기와 노래는 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땅 위에 제주만큼 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향유했던 섬이 있을까? 이러한 점에서 섬이 문학의 산실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논리를 제시해 줄 것이다.

제주설화와 민요는 제주의 역사성과 제주사람들의 삶의 실체와 그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문화의 총체성을 설명하는 문학 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구비전승에서 반 지배이데올로기성, 반 중심부,²⁰⁾ 삶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제주설화에는 제주의 형성과 역사를 설명하는 신화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제주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주사람들의 물 지향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설화는 양식적으로 전설화된 신화이다. 이 양식은 신화적 발상에서 만들어졌으나, 사람들이 즐겨 향유하면서 전설화되었다.

제주 역사의 시원은 「삼성신화」와 「케네깃당 본풀이」²¹⁾에서 특징적으

작전함에 동승한다. 며칠 동안 탐색을 했으나 이어도는 찾지 못했다. 천 기자는 제주사람들의 꿈의 땅인 이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바다에 투신한다. 그런데 며칠 후 그의 시신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제주도 연안에 떠올랐다.

20) 제주 설화의 반 지배이데올로기 문제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음.

현길언, 「제주설화와 그 주변성」, 『제주문화론』, 207~227쪽.

로 나타나 있다. 지배층이 향유했던 삼성신화에서는 제주도착 문화와 외래문화의 습합과정이 화해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것은 지배층이 공격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문화의식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향유하는 설화에서는 외래문화와의 습합과정에서 야기되는 문화의 갈등 현상 즉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여과하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동일한 문제도 향유 계층에 따라 각각 다른 양식의 작품이 창작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예가 된다. 또한 제주 문화의 이중성으로 문학의 주변성을 설명하는 단서도 된다.

제주의 대표적인 문학양식으로 무속본풀이가 있다. 제주 무속신의 일생담을 엮은 이 이야기는 신성성이나 초월성보다는 제주사람들의 역사성과 삶의 현장성이 짙게 깔려있다. 본풀이의 주인공은 신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쫓겨온 제주사람의 모습이다. 또한 본풀이는 무속의례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이 옛날이야기처럼 향유되었다.²¹⁾ 이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철저한 주변인들이다. 이들은 서울이나 중심부에서 쫓겨나 외딴 섬 제주에 들어오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통해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반 이데올로기적이고 주변적임이 드러난다.

제주설화의 대표적인 양식은 고종달설화이다.²²⁾ 제주에서 세상을 지배할 인물이 태어날 징조를 안 대국(大國) 왕이 제주에 풍수사를 보내어 인물이 날 지맥(地脈)을 단혈(斷穴)해서 제주에는 샘이 귀하고 인물도 나지 않아 불모(不毛)의 땅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설화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지리와 인물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인의 상황을 중심부의 억압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중심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제주 설화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21) 구좌읍 김녕리 케네깃당 당신의 내려담. 현용준, 『濟州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636~647쪽.

22) 무속 본풀이 중에 어떤 이야기는 일반사람들이 즐기는 이야기로서 전해진다. 그 중에 자청비 이야기는 「세경본풀이」인데 제주사람들이 즐겨 이야기되면서 일반 설화화되었다.

23) 고종달설화를 비롯한 단혈설화에 대해서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음. 현길언, 「제주도장수설화」, 흥성사, 1981, 제2장.

아기장수 설화의 변형인 비범한 인물의 일생담 설화에서도 주변부 사람의 꿈과 그 좌절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 설화는 날개가 돋은 아기의 죽음을 유예해 주고 그 인물이 장수가 아닌 장사로서 일생을 살게 했다는 점에서, 이념과의 타협과 거부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주변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설화의 특징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중적 대응은 삶의 진정성과 통한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념을 거부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해야 하는 것은 섬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은 탈 중심이고 중심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이다. 이러한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설화가 「김녕사굴 설화」와 「이형상목사 설화」이다. 이들 설화는 반 공안설화(公安說話)로서, 육지부 여러 곳에서 전해지는 공안설화인 「암행어사 설화」나 「용기 있는 관원」의 설화와 상대된다는 점에서 제주설화의 주변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²⁴⁾

이러한 제주설화의 특징은 반 이념적이면서 삶에 대한 치열성과 진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진정성은 삶의 현장을 인정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치열하게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드러내려는 리얼리즘 정신에 가깝다. 이 점은 단편사회에서 향유되던 일반적인 서사양식과는 다른 제주만이 지니고 있는 양식이다.²⁵⁾

3.3. 소설 연구의 인문학적 의미

주변적 진실을 형상화한 소설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적 방법으로 다다르지 못하는 인간과 세계의 실체를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소설 연구의 결과로서 인간과 세계의 진실은 다른 학문 방법으로 얻어낸 결과와는 차별화된다.

24) 이 두 설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논의했음.

현길연, 「蛇神傳說의 考察」, 『민속학논총』Ⅱ(석주선교회논총), 1982.

25) 제주문학의 주변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현길연, 「제주학연구방법론」, 「제주설화와 그 주변성」, 『제주문화론』, 제주목석원, 2001.

소설연구는 소설의 본질적 속성을 전제로 한다. 학문은 자연과 인간과 사회 현상의 질서를 찾아내고 그것을 의미화하고 해석하는 일이다. 소설 연구의 대상은 소설작품이다. 이것은 개별적인 문학작품들과 그것과 관련된 비본질적 문학현상들까지 포함한다. 연구자는 이것들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얻은 그 구조를 통해 작품의 미학을 찾아낸다. 이것은 인간과 세계의 주변적 진실을 설명하는 단서가 되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다가갈 수 없는 또 다른 인간과 세계의 진실이다. 여기에서 소설과 소설 연구의 인문학적 위상이 확보된다.

소설 미학은 세계 현상에 대한 과학적 원리나 법칙에 비견될 수 있다. 학문적 방법으로 도출해 낸 법칙이나 원리는 구체적인 세계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에 불과한데, 소설의 미학도 이와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된다. 즉 그 대상만이 다를 뿐이다. 학문은 인간과 세계의 중심부적 진실을 밝혀낸다면, 소설의 연구를 통해서도 그 주변부적 진실을 밝혀낸다.

그런데 문학작품도 그것이 쓰여진 사회와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작품을 만들어내는 언어가 사회 역사적 산물이고, 작가도 사회 역사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학문으로 어떤 사회나 역사를 연구하는 경우와 문학 작품으로 그 사회를 탐구하는 것은 다르다. 인간과 사회 역사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학문적 방법은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지만, 문학의 연구는 그 현상에 대응하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다른 학문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다르다. 우선 그 대상이 다르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입장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학문의 결과와 소설 연구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것이 결합하여 인간과 세계의 진실이 보다 풍부하게 탐색할 수 있다. 여기에 소설 연구의 인문학적 의미가 있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은 탐구의 다른 표현이다. 현실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작품에서 경험적 현실과 소설적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현실에 대한 소설적 상상력을 미학적 질서에 의해 재편해

놓았기 때문이다. 작품에서도 사회적 양상들을 보여주지만, 그것들은 학문으로 접근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문학사회학적 입장에서 그 두 차원의 동일성은 구조의 측면에서 인정한다.²⁶⁾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학적 입장이다. 소설은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을 탐색한다. 여기에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문학사회학²⁷⁾에서 말하는 사회학적 상상력과는 다르다. 예술작품은 사회에 대한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하여 여과된 의식을 보여주는데,²⁸⁾ 그 상상력은 사회를 객관적인 구조체로 인식하는 과학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객관적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해낸 학문적 진실과 다른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 문학 연구는 문학을 통해서 사회를 역사를 이해하기 보다는 그 사회와 역사 속에 살았던 인간을 이해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학문의 대상과 소설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 학문은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인간과 세계의 객관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설은 과학적 대상에서 제외된, 즉 과학으로 이해하고 탐색할 수 없는 인간과 세계의 주변적 진실과 다양하게 나타나는 관계성을 대상으로 한다. 과학은 자연의 물리적 실체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부적 현상이 대상이 된다. 소설은 물리적 현상보다는 그 현상과 존재가 만들어내는 관계성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탐구한다. 관계성은 곧 생활의 실체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과 세계는 다층적이면서 변화무쌍하다. 어떠한 존재나 현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26) 골드만을 위시한 여러 사회학자들은 작품과 그 작품이 생산된 사회와의 관계를 두 차원의 구조의 동일성에서 그 상동성으로 설명한다. 이 점에서 S. 코올도 같은 입장이었다(S. 코올/여균동,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한발, 1984. 191쪽).

27) 1970년대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방법론으로 빌려 썼던 문학사회학은 문학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사회학의 방법론이다.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했던 사회조사보다 더 정확한 사회의 실상을 문학 작품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구 목적은 사회의 이해이지, 그 사회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의 실체가 아니다.

28) J. 윌프/송효근, 『철학과 예술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13쪽.

쉬지 않고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존재성을 확대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일정한 틀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으로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과 세계 현상 중에는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은 작가의 감성과 문학적 상상력으로 인식해야만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다. 그것은 가치나 효용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주변적 실체를 통해서 인간의 진실을 탐색하는 일이다. 즉 소설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작품에 내재해 있는 인간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것은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소설의 질서에 의해 문학 언어로 형상화된 인간 진실은 다른 학문의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다. 여기에 소설연구는 인간의 탐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4. 소설연구의 방법에 대한 성찰을 위하여

소설연구는 소설의 구조를 이루는 자질을 찾아내서 그것을 선택하고 체계를 세워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그러나 연구도 개인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 연구에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이점에서 한국문학의 경우에는 더욱 자유롭지 못했다. 문학연구는 학문이면서 동시에 문학 활동이다. 왜냐하면, 문학연구는 문학작품이라는 객관적 세계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연구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현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되어진 허구적 현실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학문과는 다르다.

이러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설적 사실로서 확인된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해명하는 데 그 본령이 있다. 그 결과가 당대의 상황으로 사회적 가치와 상치되어도

어쩔 수 없다. 여기에 소설연구자는 학자와 소설가로서의 이중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설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금까지 소설연구는 인간이해라는 본원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사회 지배이념에 봉사하거나 다른 학문의 결과를 검증하거나, 아니면 문학을 위한 문학연구, 작가의 문학 이해에 머물러 인간의 이해에 기여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최종 연구 과제는 문학사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부분 연구 업적을 많이 낸 학자들은 문학사를 썼다. 그 중에 의욕적인 것은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이다. 그 책의 특징은 많은 자료를 통하여 문학의 흐름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 작품의 결국은 사회의 반영이나 사회 사상 또는 그 사회의 정신의 반영이라는 차원이다. 문학의 역사와 사회의 변천은 같은 선상에 있다. 그는 문학사의 핵심을 사상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초기에 조선조 이기이원론의 영웅소설의 바탕이 되었다고 논의했다.

김윤식의 연구는 문학 지성사나 문학 운동사적 성격이 강하다. 동시대의 비평 활동을 중심으로 당대의 지성인인 문학인들의 정신적인 궤적을 추적했다. 즉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의 문학적 이해 또는 접근이라고 할 만하다. 그가 서론에서 고백했듯이 문학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문학운동의 서 선명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는 정치와 문학을 동질성의 수준에서 논의했다. 그에게서 정치운동과 예술운동의 대응관계가 민족문학운동과 리얼리즘, 전향론 관계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의 문학사상자는 말 그대로 사상사이다.²⁹⁾ 그것은 당대의 지식인의 문화의식 역사 사회의식을 조감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러한 내용은 사회사와 문화사에서도 동시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또한 김윤식의 시문학사의 경우에, 일제 강점기 문학을 유학적 전통에서 시인들의 문학세계를 논의했는데, 가람, 위당, 신석초, 이육사 등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되었다. 연구자의 결론은 유학적 문화배경을 가진 시

29)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초판 1984, 3판 1993).

인 작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신문학 초기로부터 해방되기까지 문학 활동을 한 사람은 약 250여 명이(해방 직후 1946년 2월 8일~9일 이틀간 열린 전국문학자대회 초대 문인 수)(자유신문, 1946.1.28) 이들 중에 사립계층 출신은 20여 명으로 특히 1920년대 현대문학형성기에 창조 폐허 백조 동인들은 사립계통 출신이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의 세례를 받은 경우라는 것. 더욱 특별한 것은 사립계 출신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시나 시조, 비평 활동을 했지 소설가는 없다는 사실이다. 사립계통이라 할 수 있는 홍명희는 유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하지 않았다.³⁰⁾ 이는 소설의 주변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도 될 수 있다.

권영민은 한국문학사의 집필 의도와 문학사의 대상이 되는 문학텍스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연구의 본령에 충실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텍스트를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존재를 실현하고 있는 실체로서 역사적 해석을 하려는 데 문학사의 목표를 둔다고 했다.³¹⁾ 그런데 식민통치시대와 근대사회의 진입기의 문학사여서 사회 변동성이 컸던 시기에서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문학의 양식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문학사 역시 사회의 탐구 양식으로서 문학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밖에 없고 문학의 독자성에 관심을 더 두었다고 해도 문학사를 위한 문학사이지 인간 이해를 위한 문학의 역사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이해를 위한 문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변동시 사람들의 삶의 양식, 식민통치하에서의 사람들의 존재 양식을 해명하기 위한 문학 연구로 방향을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

문학사에서 이데올로기에 너무 치우친 연구로서는 『한국근대민족문학사』를 들 수 있다. 그 저술의 머리말이 인상적이다. 저자들은 책의 저술 동기를 “다가올 통일시대를 생각하면, … 새로운 단계의 질적 도약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 분단의 극복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고,

30) 김용직, 『한국현대문학의 사적 탐구』, 서울대출판부, 1997. 55~56쪽.

3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2.(해방 이전, 이후), 민음사, 2002. 14~15쪽.

... 지금까지의 진보적 문학연구 성과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학사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³²⁾ 말하고 있다. 내용도 소위 진보적 문학사상 내지 문학의식의 작품화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이르면 이 저술을 통일을 위한 민족의 문학사인데, 그 민족 구성원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문학사는 인간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문학은 인간 이해의 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인간 이해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이다. 사상의 연구나 정서의 연구만으로 충족하지 않는다. 사상과 정서는 한 인간의 극히 작은 진실에 불과하다. 이 중에 사상은 문학 연구 영역이 아니다. 특별히 '문학사상'의 연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설에서 사람의 사상은 특별한 예(목적주의 문학, 당의 문학, 정치문학)를 제외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소설은 인간의 진실이라는 막연한 인간의 모습을 허구적 서사언어를 통해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소설을 통해서, 지나가 버린 시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만이 추상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는 그 공간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 연구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여기에 있다.³³⁾

조선조 시대부터 이어받은 한국문학의 전통과 변동기 한국사회 구조가 문학연구 방향을 이데올로기 편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개화 이후 1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연구 담당자들의 소설적 인식은 조선조의 선비의 그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가치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의 하나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문학 연구도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 확산시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 소설연구 결과가 타 학문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면 오히려 객관성을 얻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32)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36쪽.

33) 본인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소설 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지표들 중심으로 『소설에서 만나는 한국인의 얼굴(일제강점기)』(태학사, 2003); 『소설에서 만나는 한국인의 얼굴(해방기)』(태학사, 2008)을 펴내었다.

이러한 연구 풍토는 소설과 소설연구가 엄청난 시대의 변혁 앞에 그 중압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화기의 근대정신, 식민통치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식, 해방 이후 분단 상황과 엄청난 이데올로기 중압, 정치적 혼란기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욕구 등등, 이러한 당위적이고 무거운 이념을 지니고 살아야 했던 사회에서 소설의 관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문학 연구사의 큰 흐름은 앞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했지만 역사 사회적 연구에 치우쳐 있다. 그것은 문학연구를 통한 인간 이해보다는 당대의 이념과 사상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문학을 이념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학의 역사가 되지 못하여, 사회문화사의 한 분야로 머물거나 사회의 표층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적 가치에 머물러야 했다. 문학의 역사는 사회사나 이념사, 생활사와는 다른, 당대의 지배 이념의 잣대로 밝힐 수 없는 인간 상상력의 궤적이고, 반 지배이념의 밑바닥에서 숨어 있는 인간과 사회의 실체를 밝혀 인문학의 새로운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문학 연구 특히 소설연구는 작품의 보유하고 있는 소설적 상상력의 자질들을 모아 체계화하여 거기에서 작품의 미학적 특질을 찾아내고, 그것을 문학의 틀과 그 변모 양식의 체계로 구축해 내어야 된다. 작품이 보유하고 있는 미학적 자질들은 인간 이해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소설의 연구는 허구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밝혀내는 일이다. 그래서 소설사는 결국 소설적 상상력의 역사, 장르사로서 문화 일반의 역사의 범주와는 달리 독자성을 가질 때에 인문학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소설의 본질, 소설의 요소, 소설의 주변성, 문학적 상상력, 인문학적 위상, 허구적 진실

<참고 문헌>

- 『성경』
『論語』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2, 민음사, 2002.
 김용직, 『한국현대문학의 사적 탐구』, 서울대출판부, 199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93.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윤병태, 『모방과 실제 1-Platon 철학과 그의 예술론』, 『인문과학』 79,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10.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 출판부, 200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5.
 현길언, 『제주도장수설화』, 흥성사, 1981
 현길언, 『蛇神傳說의 考察』, 『민속학논총』Ⅱ, 석주선고회논총간행위원회, 1982, 309~328쪽.
 현길언,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남, 1997.
 현길언, 『제주문화론』, 제주목석원, 2001.
 현길언, 『문학과 성경』,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현길언, 『한국현대소설론』, 태학사, 2003.
 현길언, 『소설에서 만나는 한국인의 얼굴(일제강점기)』, 태학사, 2003.
 현길언, 『소설에서 만나는 한국인의 얼굴(해방기)』, 태학사, 2008.
 현길언, 『인류역사와 인간탐구의 대서사=어떤 작가의 창세기 읽기』, 물레, 2009.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문고, 1977.
 현용준, 『濟州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J.윌프/송효근, 『철학과 예술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82.
 L.골드만/조광희, 『인문과학과 철학』, 문학과지성사, 1980.
 M. 제라파/이동렬, 『소설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1977.
 S. 코올/여동균,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한밭, 1982.

<Abstract>

Peripheral Nature and Humanistic Status of Novel

Hyun Kil-un

A novel is the literal work in which writers reconstruct and narrates the peripheral truth of human and world by fictitious imagination of writers. Therefore, the image of human and world revealed in the novel is peripheral which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image of the society, and it is the important nature of the novel. We can explore the parts which the science cannot explain. From this aspect, humanistic status of novel and the research of novel is established.

A Novel should be influenced by society and history. But, the manner of novelist who recognize the human and world is special. The object or the way of recognition is different from the manner of science. the results of researching the novels which are written by their own methods cannot help being different from those which are explained by science. We can explore true nature of human and world abundantly in combination with various things like these. There is humanistic meaning of research of novel in this aspect.

The research of novel is the general term for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we find, select, organize, and interpret the materials that form the structure of novel. Therefore, this kind of research is the literature activity as well as the studies. The research of novel focus on the objective world known as novels for the object of research. But it needs the literal imagination of researchers because the novel is the product of fictitious imagination. The research of novel is different in

the respect of the fact that it is about fictional reality not existed reality.

This kind of research has the meaning of explaining the truth of human and world honestly not serving for the ideology or value. However it is against the social value of the time, the result is the true meaning of research of novel and the way which makes humanistic status robust.

- Key Words: Research of Novel, Essence of Novel, Peripheral Nature of Novel, Humanistic Status, Literary Imagination, Fictional Reality

* 이 논문은 2011년 7월 14일 투고되었고, 8월 8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